

조선어 문학이라는 아포리아

— 모더니즘에서 내선일체론으로, 김문집(金文輯) 문학 전달기*

서 승 희**

요약

이 논문은 김문집(金文輯) 문학의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문집은 1930년대 중후반 한국의 문학비평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친일 행적과 기행(奇行)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제적 인물이다. 그의 문학적 여정은 ① 모더니즘 소설 실험 ②문학어 문제를 중심에 둔 비평 ③내선일체론 수용과 전개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김문집은 일본의 신감각파를 비롯한 모더니즘 문학의 지장 속에서 습작기를 보냈으며 미래 도표를 배경으로 삼은 일본어 소설 「이 모사(理毛師)」를 통해 문학적 출발을 알렸다. 이 소설은 당대 유행하던 모던걸 표상을 활용하되 소수자-이방인의 시선으로 근대성에 대한 이중의식을 표현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후 그는 몰락한 조선의 지역성을 활용한 작품들로 독자적 위치를 구축하고자 했으나 문학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1935년 조선어로 이동했다. 비평가로 변신한 김문집은 “문학은 언어예술”이라는 명제를 강조하며 조선문학이 전통 부재와 예술성 미비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의 비평은 논리정연하게 전개되지는 못했으나, 카프 문학 퇴조 이후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던 평단의 분위기를 맞물리며 문학의 본질에 대한 토의를 촉발했다. 그는 특히 김유정의 문학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문예적인 조선문학의 색인을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조선어 및 조선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문학적 분석보다는 어학적 비판에 치우치는 한계를 보였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김문집은 총독부의 내선일체 방침에 찬동하며

* 이 논문은 2024년 12월 13일 제66회 한국현대소설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결과물입니다. 토론자로서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최현희 선생님, 그리고 투고문을 논평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국문학 전공 부교수

내선 간 완벽한 평등과 무차별의 경지를 기대했고, 조선어 문학의 미와 개성을 통해 일본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유통하던 예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통합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조선 문인들의 비판과 자폭적 행보 속에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김문집의 문학은 비서구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제기된 모더니즘과 예술 지상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한편, 내선일체 담론 및 실천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되짚어 볼 만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김문집, 조선어 문학, 모더니즘, 일본어 소설, 예술 지상주의, 조선문학 비평, 조선어 교육, 문학 번역, 내선일체, 대일 협력

목차

1. 들어가며
2. 「이모사(理毛師)」의 모더니즘 실험
3. 언어의 조선 혹은 문학어라는 출사표
4. 내선일체하 조선어 문학의 운명
5. 나가며

1. 들어가며

1941년 5월 30일, 조선의 “탈선 문사” 김문집은 경성복심법원에서 사기, 공갈, 상해, 주거 침입,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언도¹⁾ 받았다. 1935년 일본에서 추방돼서 조선에 돌아온 후 “문단의 귀재”라 불리며 주요 신문과 잡지의 단골 필자로 활약하던 그가 불과 몇 년 만에 또 다시 범죄자 신세가 된 것이다. 이후 김문집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8년 『아리랑고개(ありらん峠)』라는 제목의 작품집을 출간했고,²⁾ 1961년 재단

1) 「金文輯에 八個月役」, 『매일신보』, 1941.5.30.

2) 金文輯, 『ありらん峠』, 第二書房, 1958.

법인 국제문화학회 이사장이자 북조선 귀국 운동론자로서 한 펄플릿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³⁾ 그러나 그 밖에 도일(渡日)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동안 김문집의 문학은 1930년대 중후반 근대문학비평사의 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가 주창한 비평예술론이 카프 퇴조 이후의 조선 문단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이다. 일찍이 김윤식은 “비평을 예술의 한 장르로 올려놓았다는 혹은 올려놓으려 노력했다”⁴⁾는 점을 김문집의 최대 공적이라 언급했다.⁵⁾ 실제로 그의 비평예술론은 비평도 예술이라는 테제 그 자체로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리적 내용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비평예술을 구현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문집은 한 편의 글 속에서 발레리, 호머, 니체, 아리스토텔레스, 실러, 괴테, 달타이, 구르몽, 칼라일, T.S.엘리엇 등을 인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도쿄 문단의 사정과 일본어에 통통하다는 것이야말로 그가 비평가라는 직함을 가지게 된 결정적 이유라 할 수 있다. 최초의 평문 「장혁주 군에게 보내는

3) 가와무라 미나토, 박종렬 역, 「화돈정진」, 『향토문학연구』 7, 향토문학연구회, 2004, 147-151면.

4) 김윤식, 「인상적 비평 문체-김문집론」(1968),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6, 161면.;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2002), 301면.

5) 강경화, 「한국문학비평의 존재론적 지평에 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10, 반교어문학회, 1999.; 이은애, 「김문집의 예술주의 비평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5, 한국문예비평학회, 2004. 등을 비롯해 『향토문학연구』 7(향토문학연구회, 2004)에 수록된 홍경표의 「김문집 비평의 몇 가지 논거들」, 신재기의 「창조적 비평의 주창과 그 실천」, 장도준의 「김문집의 비평 예술가론」 등이 있다. 김문집의 문단 위상을 다룬 연구로는 한형구, 「한국 탐미(주의) 비평의 한 사례」,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회, 2011.; 김문집 비판에 초점을 맞춘 논문으로는 노상래, 「김문집 비평론」, 『한민족어문학』 20, 한민족어문학회, 1991.; 이보영, 「Oscar Wilde 문학의 수용과 그 한국적 변용」, 『세계문학비교연구』 1,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1996.;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우문영, 「김문집 비평 연구-『비평문학』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7, 청람어문교육학회, 2016.; 김선, 「1930년대 중후반 문화 담론과 김문집의 ‘산론(散論)’」, 『한국학연구』 5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공개장』(『조선일보』, 1935.11.3.-11.10.)에서 그는 카이조(改造) 사의 출판 전략과 장혁주 작품의 상품성, 그리고 일본어 표현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으며 조선인 비평가들과 차별화된 논의를 펼쳤고, 그 덕분에 일본에서 막 돌아온 신진이자 저널리즘의 총아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문집 문학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일본어 소설가로서 활동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는 1938년 조선어 평론집 『비평 문학』(청색지사)과 일본어 소설집 『아리랑고개(ありらん峠)』(박문서관)⁶⁾를 차례로 간행했다. 그런데 평론집이 신문 광고, 서평 등을 통해 소개되었던 것과 달리, 소설집은 조선 문단에서 그다지 긍정적 반응이나 관심을 얻지 못했다.⁷⁾ 김문집은 과거 도쿄에서 쓴 창작을 묶어낸 소설집이 조선어 문학과는 별개의 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는 전환기의 시대 정신과 조선어 문학의 향방을 모색하던 당대 문단의 관심사와 무관했으며 한일 양국의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의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국문학 연구에 작용해 온 속문·속지주의 관행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으나 소설의 질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김문집은 쇼와 문학의 개척자인 요코미쓰 리이치(横光利一)의 제자로 자임했고 『카이조』 제1회 현상문에 당선자로서 신흥예술파를 대표하는 류탄지 유(龍膽寺雄)를 둘도 없는 친구로 거명했지만 소설 자체로 본다면 일본 문단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어 소설집을 조선에서 간행하며 소설가로서의 성공에 대한 기대

6) 1958년 일본에서 발간한 소설집과 동명의 소설집이다. 박문서관에서 발간된 1938년판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목차만 확인 가능하다. 1938년판과 1958년판의 작품 수는 9개도 동일하나 작품명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서 소설집이 재출간되는 과정에서 제목이 변경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작품의 원전과 1958년 판본을 비교해 보면 문장 및 결말의 차이가 발견되긴 하나 주제 의식에 변화가 있지는 않다. 서승희, 『식민지 테카당스의 정치성-김문집의 이중어 글쓰기론』, 『식민지 근대의 크리티크』, 소명출판, 2023, 301-303면.

7) 평론집과 소설집이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출판된 덕분에 평론집 맨 뒷장에 소설집 광고를 실을 수 있었는데, 이 사실 자체를 두고 시비가 벌어질 정도로 일부 조선인 문인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김문집, 「문단재건론」, 『삼천리』 11-4, 1939.4, 216면.

를 놓지 않았다.

김문집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표지는 ‘친일문학가’이다. 임종국은 김문집의 친일적 문필 활동 중 최대 걸작으로 「축하할 죽음(祝ふべき死)」(『國民新報』, 1939.7.16.)을 꼽고 있다. 이 글은 육군특별지원병 제1기생으로 입소하여 산서성 방면에서 전투 중 폭탄을 맞아 조선인 지원병 중 최초의 전사자가 된 이인석 상등병의 죽음⁸⁾을 ‘축하’한 글이다. 김문집은 내선일체론에 기민하게 반응한 문인답게 이인석 상등병의 전사에도 가장 먼저 논평을 내놓았다. 뒤이어 「히심탄회」(『매일신보』, 1939.9.17.), 「일본 문화의 특수성」(『매일신보』, 1939.9.23.-9.28.) 등에서 일본문화와 일본적 기질을 찬양했으며, 「내선일체의 구현 방법-조선 민족의 발전적 해소론 서설」(『조광』, 1939.9)을 통해 황국 신민으로의 필연적 도정을 강조하는 등 대부분의 조선 문인들이 내선일체에 거리를 두고 있던 이때 신속히 협력의 선두 진영에 자리를 잡았다.⁹⁾ 그래서 장차 조선인 황민화 프로젝트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었으나 각종 범죄 행각으로 인해 죄수복을 입고 삭발한 大江龍之助(창씨명)의 얼굴로 공식 문서에 남게 됐다.

이와 같은 김문집의 행보는 민족문학의 지평으로도 완미한 예술의 세계로도 수렴되지 않는 파열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의 글쓰기에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전제이다. 김문집은 수많은 레퍼런스를 동원해 화려하고도 비약적인 글쓰기를 펼쳤지만 언제나 ‘문학은 언어예술’이라는 평범한 명제를 강조하거나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식민 본국의 모더니스트로 습작기를 보냈으며 식민지

8) 김문집은 이인석 상등병의 전사에 가장 먼저 반응한 문인이다. 이후 이인석 상등병은 조선인의 황국혼을 표상하는 군국 영웅으로 서사화되었다. 식민권력은 이를 황민화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활용하고자 했고, 조선인 정치 세력은 이것이 조선인 최초의 혈세 납세임을 내세워 징병제와 참정권 획득을 위한 정치적 바게닝의 호제로 활용하고자 했다. 정안기, 「이인석 상등병의 전사와 ‘죽음의 정치성」, 『일본문화학회』 76, 한국일본문화학회, 2018, 160면.

9)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1966(2005), 198면.

동원과 선진 문학의 요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해야 했던 조선인 김문집에게 이 명제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선어로 문학을 하고자 애썼으나 비평으로도 창작으로도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갖가지 트러블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의 문학 활동은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출판 문화 지형을 되비추는 거울로 기능하는 한편, 전시체제하 언어의 강제를 두고 벌어진 식민지 문단의 작용과 반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일찍이 김사량은 소설 「천마(天馬)」(『文藝』, 1940.6)에서 내선 문단의 관계와 김문집이라는 존재의 문제성을 형상화했으며, 그의 탁월한 재현을 통해 김문집 문학 전말기는 완성됐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김문집의 글쓰기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문집의 모더니즘 소설로부터 시작하여, 문학어 문제에 대한 김문집의 입장, 그리고 조선어 보존을 기저에 두고 있는 그의 내선일체론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며 김문집이라는 이름 위에 떠도는 다양한 표지들의 관계와 의미망을 재구해 보고자 한다.

2. 「이모사(理毛師)」의 모더니즘 실험

김문집의 일본어 소설 연구는 페티시즘과 데카당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논의는 ‘영원한 여성’의 표상에 집착하는 페티시즘에 주목하며 절대미를 동경한 김문집의 의식 구조를 분석했고,¹⁰⁾ 두 번째 논의는 식민지라는 특수 소재에 데카당스 미학을 덧칠한 김문집의 소설이 식민지 근대에 대한 비판적 사유에 이르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10) 황경, 「김문집의 일본어소설 연구『아리랑고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9, 한민족문화학회, 2012.

바 있다.¹¹⁾ 이 연구들은 각각 상이한 작품군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조선의 장소성과 연관되는 작품을 중심에 두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이 작품들보다 이른 시기에 쓰인 것으로 생각되는 「이모사(理毛師)」를 중심으로 김문집의 문학적 출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¹²⁾

「이모사」는 『아리랑고개』에 수록된 소설들 중 김문집이 유일하게 여러 번 거론한 소설로서 1958년 판본에도 제목 변경 없이 수록되었다. 그는 도쿄 시절 회고담에서 오사카의 중국인 이발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이모사」의 밑바탕이 됐다는 점, 류탄지 유에게 전달한 이 소설이 훗날 동인지 『로만(ロマン)』에 수록되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¹³⁾ 요코미쓰 리이치에게 보내는 서간에서도 작품명과 창작 연도, 소설의 첫 문장을 거론한 바 있다.¹⁴⁾ 또한 이 작품이 호평을 받아서 “게이오 왕국의 의자” 하나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도 밝혔는데, 실제로 그는 나가이 가후(永井荷風)가 1919년 창간한 문예잡지로서 탐미파의 아성으로 불리는 『미타분가쿠(三田文学)』¹⁵⁾에 세 차례 소설을 수록한 바 있다.¹⁶⁾ 이 잡지는 신진에게도 가까이 지면을 제공했는데, 게이오대학 출신인 류탄지 유와의

11) 서승희, 앞의 책 참조.

12) 작품 인용 시 1958년에 발행된 第二書房 판본을 활용했으며, 인용 문수는 인용문 말미에 괄호로 첨부했다.

13) 김문집, 「동경청춘기-화약과 순정의 문학적 추억」, 『조광』, 1939.8. 「장혁주 군에게 보내는 공개장」(『조선일보』, 1935.11.5.)에서는 1932년 『로만』을 본인 주도로 창간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실상 류탄지 유가 주도한 잡지로 알려져 있다. 일본 문단에서의 활동상이나 일본 문인과의 친교를 논할 때 김문집은 종종 사실을 과장, 왜곡, 생략했으므로 그의 회고문을 문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의 회고문으로 미루어 볼 때 김문집이 『로만』의 동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가와무라 미나토, 앞의 글, 132면.

14) 金文輯, 「あなたの螻蛄姿, 横光利一さんへの私信」, 『國民新報』, 1939.4.30.

15) 『미타분가쿠』 홈페이지 참조. <https://www.mitabungaku.jp/about.html>

16) J-DAC(Japan Digital Archives Center, <https://j-dac.jp>)에서 ‘온라인판 『三田文學』’에 검색어 ‘金文輯’을 입력하면 「女草履と僕」(1932.11), 「ありらん峠」(1933.9), 「京城異聞」(1936.5) 등 세 편의 소설이 수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친분에서 교류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류탄지 유를 비롯한 일본 문인들은 「이모사」에서 어떤 가능성을 엿본 것일까? 이 소설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세기말 도쿄를 배경으로 삼은 소설로서 기계 문명이 고도화된 근미래를 묘사하기 위해 자동차, 지하철 등은 물론 초고층 빌딩, 비행선, 로봇 등 사이언스픽션의 주요 소재들을 다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이는 포스트 근대의 사변 실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쿄의 실재에 상상력을 덧입혀 난숙하다 못해 부패의 분위기마저 풍기는 근대 문화의 극단을 강조하기 위한 레토릭이라 할 수 있다.

해 질 녘의 유리(ユリ) 백화점 옥상에서 나와 마하가라는 우에노(上野)행 비행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려다보이는 도쿄 극장(東劇)·가부키좌(歌舞伎座)·핫토리(服部) 등 고풍스러운 작은 건물에서 고개를 들어 멀리 스미다가와(隅田川) 일대로 시선을 넓혔다.

획기적으로 그 양식의 새로움을 자랑하는 28층짜리 고토(江東) 무자산(無資産) 빌딩이 안개 속 저 멀리 기요스교(清洲橋) 너머에 우뚝 솟아 있다.(47)

만원 비행선이 옥상 항구에 내렸다. 물렛 돌리는 소리를 닮은 스무 개 남짓의 발굽(heel)이 승강구 계단을 급히 흩어지자 교대로 한 다스 정도의 뾰족한 숙녀·신사가 줄을 지어 반대쪽 입구에서 콧뚨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자 엔진은 다시 열병으로 숨이 막혀 원자 추진기가 좌우의 공기를 두드렸다. 은가루를 바른 가장 좋은 고구마 같은 이 도쿄 명물은 이 육공중에 중세풍의 베니스파를 그리며 조용히 백화점을 이룩했다. —새로운지, 구식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이 광경.(49)

다음 날 아침, 우리 둘은 요코하마(横浜)로 가는 지하철에 있었다. 우수한 엔지니어의 미학이 낳은 지하의 주자(走者). 네오 르네상스형 상들

리에에 비친 시네마·오페라 솔레이(음악의 밤)·피셔지·호텔, 거기에 가령 로트렉풍 만화로 얼버무린 피임 도구 등등의 광고 행렬이 경쟁하는 듯한 얼굴로 승객의 눈길을 빼앗고 있었다.(51)

핸들을 꺾은 엔진은 휘파람 소리를 내며 긴자를 향해 우에노의 산을 내려갔다. 11층으로 증축한 마쓰자카야(マツザカヤ)가 초저녁의 어스름을 뚫고 히로코지(広小路) 모퉁이를 점령하고 있다. (중략)

지하철 긴자 역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나는 세단을 내렸다. 밤! 여름은 긴자의 밤이라고 한다. 도시에서 목가(牧歌)가 그리워지면 네온의 꽃샘바람을 도시의 목가로 삼자. 그리고 품행 방정한 수천의 승강기들은 우리가 가진 도시의 물레방아인가. 나는 그 헛갈리기 쉬운 하늘 가득한 목가에 압도되어 여송연의 풍초를 구두코로 밟고 산문으로 젖은 보도를 걸었다.(57)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재건된 도쿄는 에도 시대의 정취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루노우치, 긴자, 신주쿠 등 변화가로 급성장한 도시 공간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다. 여기에 미국 대중문화와 에로, 그로, 넌센스의 풍속이 결합하면서 도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당시 모던 라이프를 대표하는 공간은 백화점이었다. 쇼와 초기에 일본의 백화점은 기존의 르네상스 양식에서 보다 간결한 아르데코 양식으로 재정비되기 시작했으며,¹⁷⁾ 지하철 노선과 연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옥상정원, 식당,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냉난방 설비까지 완비해 나갔다. 또한 각종 문화 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하며 유람장으로서의 성격을 새롭게 확보했다.¹⁸⁾

「이모사」는 이렇듯 문화의 최전선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던 근대 백

17) 히쓰다 토오루, 이태문 역, 『백화점-도시문화의 근대』, 논형, 2003, 243-256면.

18) 손지연, 「쇼와 초기 문학에 나타난 도쿄 표상과 일본인의 심상지리」, 『일본학연구』 26,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312-324면.

화점의 새로운 공간성을 중심에 두고 있는 소설이다. 여기서 ‘유리’라는 가상의 백화점은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지는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디오니소스의 몽상”으로 가득 찬 “근대 문화의 도가니”로 그려지며, 이를 대표하는 카페, 옥상정원, 대승강기, 네온 폭포, “BEAUTY-INDUS”라 명명된 최첨단 이모(理毛) 샵 등이 다양한 물질과 색채의 병치 속에서 화려하게 묘사되고 있다. 한편 웨이트리스를 garçonne로, 희망을 espoir로 표기하는 등 일본어를 외국어로 대체하거나, 손수건, 해변 양산, 부인, 잔, 점, 단발 머리 등의 단어에 행커치프, 비치 파라솔, 레이디, 글래스, 스팟, 보브 등을 가타가나로 병기하는 등 루비(ルビ)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특징은 김문집 고유의 기법에 해당한다기보다 그가 일본 모더니즘의 충실한 학습자였음을 알게 해 주는 근거들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모더니즘 문학은 1924년 『분게이지다이(文藝時代)』 창간 이후 신감각파, 신흥예술파, 신심리주의파 등 세 개의 분파가 전개된 것으로 설명되는데,¹⁹⁾ 이 중 첫머리에 놓이는 신감각파는 반(反)프로문학, 반(反)전통, 반(反)사소설의 기치 아래 새로운 문예를 추구한 일군의 문인들을 가리킨다.²⁰⁾ 요코미쓰 리이치가 “불타는 초원에 이런 근대 과학의 첨단이 잇달아 형태를 갖고 나타났던 청년기의 감각은 어떤 의미에서건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²¹⁾고 했듯이 신감각파는 낡은 것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것에 대한 긍정으로부터 촉발된 것이었으며 이를 표현할 새로운 표현과 문체의 모색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그러므로 쇼와 초기 도쿄의 새로운 공간성을 비전통적인 언어로 포착한 김문집의 소설은 신감각파의 테제를 실험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19) 강인숙, 「일본 모더니즘 소설에 대한 고찰」, 『구보학보』 1, 구보학회, 2006.

20) 오세인, 「한일근대문학에 나타난 감각 개념의 비교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7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173면.

21) 호쇼 마사오 외, 고재석 역, 『일본현대문학사』 상, 문학과지성사, 1998, 22-23면.

한편 「이모사」의 캐릭터 설정 및 주제 의식과 관련해서는 류탄지 유와의 영향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카이조』 1회 현상문에 당선작인 류탄지 유의 「방랑시대(放浪時代)」(1928)는 근대 도시 공간에서 보헤미안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세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이른바 “명량한 근대성”을 그린 이 작품은 종래 우울하고 무거운 리얼리즘 작품과 정반대되는 도시 문학의 세계를 개척했으며,²²⁾ 화려하고 경쾌한 ‘마코’ 캐릭터를 통해 모던걸의 전형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²³⁾ 그러나 도쿄 회고담에서 언급했듯 김문집은 『카이조』 1회 현상에서 낙방한 후 카이조사 폭발을 목표로 상경할 정도로 류탄지 유의 당선을 받아들이지 못했다.²⁴⁾ 그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그가 제출한 응모작은 ‘영원한 여성’ 모티브를 다룬 「地と血」이라는 작품이었다.²⁵⁾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1929년에 쓰인 「이모사」는 류탄지 유와의 대결 의식과 차별화 의지의 소산일 가능성이 크다.

「이모사」는 류탄지 유가 그려 낸 현실의 모던걸을 상회하는 존재를 등장시키는데 ‘제6인터내셔널’로 지칭되는 일군의 첨단 여성들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에서 발원한 이들은 의복 대신 바디페인팅(裸装)으로 몸을 장식한 채 세계적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이모사’는 제6인터내셔널의 매끈한 육체를 위해 체모를 관리하는 신종 직업을 가리킨다. 주목할 점은 제6인터내셔널 여성이 아니라 조국을 떠난 인도인 남성 이모사 ‘마하가라’가 초점 화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22) 小倉齊, 「龍騰寺雄の挑戦 : 「放浪時代」を中心に」, 『愛知淑徳大学大学院文化創造研究科紀要』 8, 愛知淑徳大学大学院文化創造研究科, 2021.

23) 류탄지 유는 「방랑시대」로 모더니즘 문학의 총아로 부상했으나 전성기는 길지 않았다. 경박한 도시 풍속 묘사에만 몰두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그간의 일본 문학사에서 류탄지 유 및 신흥예술파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하경, 『모던걸-일본 제국과 여성의 국민화』, 논형, 2009, 168-170면.

24) 김문집, 「동경청춘기 화약과 순정의 문학적 추억」, 『조광』, 1939.8.

25) 김문집, 「비련의 애처로운 기억-꿈 많은 기절에 맺었던 c자와 나의 인연」, 『조광』, 1936.5.; 김문집, 「심경 고백 나의 실연 고백기」, 『조광』, 1936.6.

이다. 제6인터내셔널 여성은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계 곳곳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동양적 윤리와 젠더 규범을 넘어선 과격적 행보를 보이지만 그들은 사건의 주체가 아니라 그저 관찰의 대상일 뿐이다. “20세기의 총결산과 같은, 내게 제2의 고향인 도쿄의 발랄함을 생각하면 어쩐지 나는 반드시 어떤 초조합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가? 제2에 대한 제1의 고향, 그곳에 버려진 나 자신의 과거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겠지.”(47) 이렇듯 이 소설은 이모사의 시선을 통해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난무하는 도쿄의 메트로폴리스적 면모를 강조하는 한편, “이윤에 미친 문화의 패러독스”에 지친 보헤미안의 허무와 고독, 방향 상실의 비애를 조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요컨대 김문집은 ‘명랑하지 못한’ 근대성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류탄지 유와의 차별화를 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도쿄의 새로운 도시성과 모던걸 캐릭터를 실험적 방법으로 그려 냈다는 점에서 일본 문단 내 시의적 의미를 확보할 뿐, 근대성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통찰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연대기구인 ‘인터내셔널’을 차용한 이 소설의 패러디는 성공적인가? 원자화된 소비 문화를 표상하는 모던걸의 행위는 일탈로 비추어질 뿐 정치성의 함의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 문명의 해방과 파국이라는 양면적 측면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제시했는가? 뿌띠 부르조아 출신으로서 실연 때문에 조국을 떠난 이모사의 고향 상실은 극히 개인적인 사연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도 세기말에 이르러 동양·일본 문화가 서구적 근대성을 대신하여 문화의 최첨단을 달리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과격적으로 전시되고 있는 현란한 여성 육체는 전위인가, 쾌락적 응시의 재생산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이모사」는 제대로 답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당시 일본 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면 그 이유는 트렌디한 경향성과 조선 출신 신인이 썼다는 이채로움 등에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쇼와 초기를 풍미하던 모더니즘의 물결이 지나간 후 김문집은 조선적 색채를 가미한 일련의 작품들로 승부수를 띄우게 된다. 그는 1932년 『카이조』 5회 현상 문예에서 자신과 친분이 깊던 장혁주의 「아귀도(餓鬼道)」가 2등으로 당선되는 뜻밖의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그는 그토록 서투른 일본어로 조선의 현실을 표현한 작품이 당선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예술적 수완 없이 조선이라는 지방색을 이용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²⁶⁾ 한편으로는 「이모사」의 단계에서는 간접화했던 소수자성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장혁주와 달리 미적인 방식으로 조선의 지방색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갔다.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일련의 소설들이 바로 그 결과물로서, 그는 몰락한 식민지의 장소성을 페티시즘과 결합하고 데카당스 서사의 핵심 장치로 활용하며 장혁주와 변별되는 고유의 영역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고바야시 히테오(小林秀雄)가 김문집의 「아리랑고개」를 읽고 쓴 공개서한에서 언급했듯이 “이상한 사건과 병적인 심리를 취급하는 것”만으로는 문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²⁷⁾을 그는 끝내 깨닫지 못하거나, 알았어도 극복하지 못했다.

3. 언어의 조선 혹은 문학이라는 출사표

김문집은 조선으로 송환²⁸⁾된 후에도 소설 쓰기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26) 장혁주의 현상 당선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은 「장혁주 군에게 보내는 공개장」에 담겨 있다. 김문집은 이 글에서 자신이 장혁주의 “유일한 선배”로서 「餓鬼道」의 제목에서부터 인물, 스토리, 문장에 이르는 일체를 자기 손으로 지도하고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두 사람은 동향으로 대구 출신이며, 장혁주가 4살 연장자이다.

27) 고바야시 히테오, 「김문집 군에게」, 『문학계』, 1933.11. 가와무라 미나토, 앞의 글, 128면에서 재인용.

28) 1935년 김문집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받고 조선에 송환되었다. 「김문집 검거」, 『조선일보』, 1940.4.2. 이 사실은 김사량의 소설 「天馬」는 물론, 일본의 소설가 타무라 타이지로(田村泰次郎)의 회고(가와무라 미나토, 앞의 글, 132-133면.), 김문집의 소설집 『あり』

「동정의 낭만파」(『조광』, 1936.1.)와 「월광의 곡」(『여성』, 1936.4) 등이 그 증거인데, 전자는 귀부인의 생리혈을 구하는 청년의 구애담을 다루었고, 후자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독일 유학생 청년이 시각장애인 여성과 비로소 하룻밤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연을 중심에 두고 있다. 두 편의 글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일본어 소설에서 보여주던 표현과 주제상의 특징이 사라지고 스토리만 남았다는 점이다. 이는 재미있지도 로맨틱하지도 않으며 교훈도 없는, 기담에 불과했고, 남성적 욕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연애 서사의 주 소비층인 여성 독자의 요구나 감성을 충족시키기엔 적합한 것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막 조선어 공부를 시작한 그는 자기 고유의 문체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귀국 직후의 몇몇 시도 이후 김문집은 조선어 서사를 써서 발표하지 않게 된다. 조선 문단의 신진 비평가 김문집의 탄생은, 일본어 소설가 김문집이 조선의 현실과 감정을 조선어로 그려 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뜻밖의 결과였다. 한편으로 이는 일본 모더니즘에서 습득한 반전통론과 반프로문학론, 그리고 미학론을 새로운 방식으로 언어화하는 실험의 시작이기도 했다.

1936년 벽두에 김문집이 발표한 「전통과 기교의 문제-언어의 문화적, 문학적 재인식」(『동아일보』, 1936.1.16.-1.24.)은 논리적 체계를 지닌 기성 비평과 달리 내용적 형식적 “탈선”을 특징으로 하는 “산론(散論)”의 구현을 목표로 쓰인 글이다. 당시 문단의 주류를 이루던 마르스크스주의자나 외국문학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 비평가군이 언제나 과학과 이론의 문제 및 비평의 선도성을 의식하고 있던 것을 감안할 때 김문집의 이러한 글쓰기는 전무후무한 시도였다.

김문집은 우선 조선문학에 전통이 없다는, 1930년대 중반이라는 시점에서 보자면 결코 신선하다고 할 수 없는 진단으로부터 글을 시작한다.²⁹⁾ 그러나 전통 부정론, 한문학 부정론을 문학어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는 점

らん時』(1958) 후기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다.

29) 김문집, 「전통과 기교의 문제-언어의 문화적, 문학적 재인식」 2, 『동아일보』, 1936.1.17.

에서 개성적 논점도 확보하고 있다. 그는 전통의 부재를 기교의 부재로 연결한 후 기교가 창작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언급한다. 그가 논의하는 기교는 예(藝)이며 예는 작가의 호흡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를 독자도 호흡하게 하는 것이 작가의 재주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런데 김문집은 문학이 언어예술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글에 대한 검토로 논의를 전개하지 않고 조선 ‘말’에 대한 이야기로 논의를 틀어 버린다. 영어가 문예적, 프랑스 말이 음악적, 독일 말이 극적, 중국 말이 무용적, 일본 말이 회화적인 데 반해 조선말은 조각적이다, 서울 계집애의 말을 제외하면 일반 조선말은 우수하지 못하고 유교 때문에 여자 말은 세계적으로 뒤떨어진다 운운이 그것인데, 이러한 논의는 민족의 문화 및 전통을 표상하는 핵심 수단이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말을 지어서 조선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소결로 마무리된다. 말이 문학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생략한 채 그가 강조하고자 한 최종 주장은 “조선 작가는 언어의 조선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전통과 기교에 관한 철저한 해명이 새로히 있기를 바란다.”(1.24.)는 것이었다. 결국 김문집이 애초에 목표로 삼은 논의의 ‘탈선’은 충실히 구현된 셈이며, 이처럼 비평 아닌 비평에 대한 기성 문인들의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도 김문집의 데뷔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임화는 「문학의 비규정성의 문제」(『동아일보』, 1936.2.2.)를 통해 카프 해소 이후 문단을 지배하고 있는 무이론주의의 한 예시로서 김문집의 산문에 접근했다. 카프의 정치주의에 대한 반발을 비롯해 카프와 거리를 두는 전략, 그리고 예술지상주의자 김문집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문단에 특정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한차례 짚어 보겠다는 생각에서이다. 특히 김문집은 문학을 불가지(不可知)의 대상으로 신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학은 과학적 규정과 완전히 자유로운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물질을 정신의 속성으로 보는 관념론에 기초해 있는 김문집의 논의는 중세의 수공업적 장인주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제작자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문학을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적 표상이 문학적 구체성, 진실성,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기초 위에 과학적 개념과 논리성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임화는 주장한다. 요컨대 임화의 의도는 “문학을 과학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혹은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반격하며 혼돈기에 처한 문학의 향방을 가늠해 보자는 데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김문집의 산론은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문학 그 자체”라는 전향 선언의 계보로 연계되며 메타적 해석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이렇듯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카프 퇴조 이후의 정세와 맞물리며 조선 평단 내의 위치를 부여받은 김문집은 그 다음 단계로서 실제 작가 및 작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때 그가 “언어의 조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작가로서 발견한 대상은 김유정이었다. 조선에 와서 비로소 한글 예술을 감상하기 시작한 그는 이상의 「날개」(1936)를 “지금으로부터 칠팔 년 전 신심리주의의 문학이 극성한 동경 문단의 신인 작단에 있어서는 여름의 맥고모자와 같이 흔했다”³⁰⁾고 논평했고, 보다 훗날에는 박태원의 작품들을 두고 요코미쓰 리치의 「기계」를 연상케 한다면서 “밀도 있는 문체와 근대 과학을 육체적으로 소화한 유니크한 문학”³¹⁾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크게 감흥을 표한 작품은 김유정의 「안해」(1935)였다. 그는 김유정을 일반 조선문학에 있어서 가장 부족하다 생각되는 “모찌미(特殊體臭 또는 個體香)”의 소유자로 규정하며, 그의 전통적 조선 어휘의 풍부와 언어 구사의 개인적 묘미는 소위 조선의 중견, 대가들이라도 따를 수 없는 수준이라고 고평했다.³²⁾ 실상 김문집이 발견한 것은 일종의 향토성으로서 도쿄 문단의 작가들이 조선문학에서 지방색을 찾고 흥미로워하던

30) 김문집, 「날개의 시학적 재비판」, 『비평문학』, 청색지사, 1938, 40면.

31) 김문집, 「희작자 박태원」, 『조선문학』 18, 1939. 이화진, 「박태원과 신감각파, '감각'의 양상과 의미」, 『반교어문연구』 44, 반교어문학회, 2016, 288면에서 재인용.

32) 김문집, 「김유정」, 위의 책, 403-404면.

모습들과 그다지 먼 거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말에서 조선 문장으로 건너온 김문집의 논의는 소설가 안희남의 「문장론-현역 작가들의 기량」(『동아일보』, 1936.9.3.-9.10.)이라는 진지한 논평을 또 한 번 촉발했다. 안희남은 문장을 통해 각 작가의 개성을 짚는 과정에서 박태원의 “주지적”이며 “냉정”한 문장에 비해 김유정의 그것이 “야생적”이며 “정열”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김문집은 작품의 전체적 완성도보다 오로지 언어와 문장의 힘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9.9.) 한편 김문집 스스로 조선어를 모른다고 하면서 비평을 할 때는 조선어에 무불통지한 것처럼 포즈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희극적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9.10.)

이렇듯 역설적 상황 속에서도 언어 문제는 마치 김문집 비평의 인장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습을 바꾸며 드러났다. 「평단 파괴의 긴급성-신문 학예면의 문제」(『조광』, 1936.5)에서와 같이 비평의 난해함을 지적하는 김문집의 비판은 상당한 설득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예시로 든 이갑기의 글이 실제로 난해하기도 했거니와 일반 대중이나 청년 학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비평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어 비평의 형질 변환을 논하면서 그 사례를 도쿄 문단의 ‘일류’ 평론들, 그리고 요코미쓰 리이치가 극찬한 폴 발레리의 『다빈치방법입문』 등에서 가져오는 우를 범하기는 했지만, 비평의 언어와 형식에 대한 그의 문제 제기는 원론에 가까운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타당한 지점도 지니고 있었다.

한편 김문집은 새삼스레 사회주의 문학 비판론에 나서기도 했는데 「조선 문예학의 미학적 수립론」(『조광』, 1936.12)에서 “문예학은 약속과 법칙으로 동작하는 로봇트 류의 무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아니고 고차원적 유기물인 인간이 인간의 최고 산물인 문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고등 학문의 하나(247-248)”임을 천명했다. 또한 문학이 언어예술인 이상 방법론으로서의 언어와 작가의 정신적 분비물을 혼합한 후 그곳에서 문예학의 인자를 찾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역시 원론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일 뿐, 기본적으로 김문집의 문학어 비평은 “언어를 닦어(修)라. 언어의 조선을 갈어(磨)라. 말을 닦고 말을 가는 이 공사에서 조선문학은 시중한다.”³³⁾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고, 김유정을 제외하고는 문학어로서의 조선어를 증명하는 올바른 사례를 제시할 수 없었다. 결국 김문집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할 수 있던 영역은 일본어를 옳게 썼는지 검증하는 지면이었다.

예컨대 「김말봉론」(『신가정』, 1936.8)³⁴⁾에서 김문집은 『밀랍』의 한 대목을 집요하게 문제 삼는다. 상만과 자경이 결혼식을 하고 여행을 떠나는 장면인데, 그가 포착한 문제는 꽃다발을 내미는 아이의 뒤에서 요시애가 건넨 말에 있다. 「さ お花を差し上げませう そしてお辭儀をしませう(자 꽃을 드려요 그리고 인사를 해야지)」(372) 이런 경우에는 먼저 어린아이의 이름을 부르게 마련이라는 점, 이름을 부른 후에는 바로 대사가 나와야 한다는 점, 여성적 본능을 고려할 때 더 귀엽게 표현했어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문집은 이와 같은 대화가 일본에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상황에 따른 대화법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고 훈계한다. “문학이 언어의 예술인 한 통속소설도 문학의 권내인 한 그러고 작중의 회화는 언어의 언어인 한 비록 그가 통속 작가일지라도 언어의 미술적 신비성과 그의 무한한 페리케트한 성정을 거부할 권리는 없을 것이다”(373)라고 언급하며 그는 거듭 언어 사용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김말봉은 무반응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나의 분격」(『삼천리』, 1936.12.)에서 그는 연재 소설을 제대로 읽지 않고 평론을 쓴 김문집의 몰상식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33) 김문집, 「언어와 문학 개성」, 위의 책, 9면.

34) 김문집 평론집 『비평문학』에 「조선판어류구미론-김말봉을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여기서 ‘구미’란 일본 작가 구메 마사오(久未正雄)를 가리킨다.

「さ お花を! 云云」하는 말은 결단코 꽃을 드리는 인사가 아닌 것이다. 요시애가 꽃을 드리며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저주와 악담과 조롱과 복수의 원갈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선전포고(宣戰布告)이다. 보통 여자가 「이놈아 너는 나를 망쳐놔코 잘도 장가를 드는구나」하고 니를 부드득 갈고 들킴들 경우이다.

그 때문에 이것은 한 녀자가 한 남자에게 보통 회화로써 인사를 하였다는 것보다 었던 주문(呪文)이랄가 격(檄)이라고 볼 수 있는 말이다.

총명한 김문집 씨여. 일천여 행의 당신의 어학 강의는 여기에서 비로서 부즐업는 잠고대가 되고 만 것을 깨닫나이가? 충실히 읽어도 보지 못한 작품을 평하겠다고 대담스럽게 붓을 잡은 김문집 씨의 태도를 었더게 해석할가? 사나이답지 못하게 공연이 남의 작품에 티를 넘치는 악의(惡意)가 아니라면 그는 분명코 그의 대뇌(大腦)를 조직하고 있는 신경줄의 몇 가닥이 빠졌다고 볼 수밖게 없는 노릇이다.

「이만하면」하고 북어 대가리를 물고 다라나는 강아지 거름처럼 받브게 붓을 놀린 김문집 씨의 만용(蠻勇)에는 경악(警愕)을 초월한 분반(噴飯)의 경지(境地)가 있을 뿐이다.(182)

이처럼 전후 맥락 속에서 소설의 대화를 파악하라는 김말봉의 지적은 타당한 것이었다. 또한 김문집의 비평은 비평이 아니라 “어학 강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적절했다. 문제는 이 어학 강의야말로 김문집이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이었다는 데 있다. 김문집은 「비평예술론」(『동아일보』, 1937.12.7.-12.12.)에서 자기완성에의 미적 본능을 원동력 삼아 펼쳐지는 비평을 제창했고, 개성적인 스타일, 유니크한 매력, 비평 관점의 변환, 비형식적 고답성 등이 교향악적으로 어우러진 유기체적 궁극의 세계를 상상했지만, 조선어 문학의 세계에서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장혁주의 등 단작과 김말봉의 연재 소설 속 대화, 최재서의 일본어 번역 문장에 대한 비판³⁵⁾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는 일본어 문장의 시비를 가릴 때에만 그나마 논거가 확실한 글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집의 「비평예술론」과 「판결례문학론」은 1938년 조선일보사출판부에서 간행된 『현대조선문학전집』 5권 평론편에 수록됐다. 조선 근대 문학의 전개를 보여주는 중요 평론들을 망라하기보다는 카프 퇴조 이후 평단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 이 책에서 김문집은 김환태와 더불어 문학의 예술성을 대변하는 신진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화는 김문집이 주장하는 비평예술론의 독자성을 사실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문집의 주장대로 작가가 생성한 미적 가치를 재판단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비평예술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치의 표준과 원천이 명시되지 않는 한 비평예술은 평자의 주관에 따라 쓰이는 인상비평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³⁶⁾ 그러나 김문집은 한문학, 리얼리즘 문학, 프로문학 등 각종 예술의 적들을 몰아내고 공백으로 남은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술’이라는 정답 하나였다.

4. 내선일체하 조선어 문학의 운명

김문집의 시국 논평 쓰기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노구교사건(蘆溝橋事件)이 발생하자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조선을 일본의 병참 기지로 만들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황국 신민의 서사」를 공포(1937.10)하여 황국 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하는 한편 조선 통치 정책의 의무와 통치 목적을 재천명(1938.2)하며 사상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³⁷⁾ 이후 「육군특별지원령」과 함께 공포된 제3차 「조선교육령」(1938.3.4.)은 외형상으로는 내선인 교육 차

35) 김문집, 「재서의 화역과 홍효민 씨의 신희평론」, 『조선문학』, 1937.2.

36) 임화, 「현대조선문학전집 평론집을 독함」, 『조선일보』, 1938.7.16.

37) 전상숙, 『조선총독의 지배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2, 280-283면.

별을 철폐하겠다는 조선총독부의 취지가 법적으로 구현된 것이었으나³⁸⁾ 실제로는 조선인을 병력 자원화하기 위해 ‘황국신민화’를 강제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였다.³⁹⁾ 이전까지 조선어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의 필수 과목으로서 교과 배열 순위에서도 일본어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 이후 수의 과목으로 전락했고 교과 배열 순위도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났다.⁴⁰⁾

이러한 개정 교육령의 하위 법규가 발표되기 전부터 조선 사회에서는 조선어 과목의 축소 혹은 수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일례로 당시 『조선일보』는 개정 교육령 공포 다음 날 사설을 통해 당장의 일상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선어 교육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선인의 민도를 높이고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보다 배우기 쉬운 조선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주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학교 졸업 정도로는 조선어로 의사를 표하거나 조선어 서적을 온전히 해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현재의 과목 수마저 축소한다면 일상생활은 물론 문화 보급에도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니 조선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조선어 교육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설의 핵심 주장이었다.⁴¹⁾

「남총독 회견기-조선문단 옹호의 전말」(『조광』, 1938.9.)는 이렇듯 위기에 처한 조선어의 운명을 해결해 보고자 분투한 김문집의 기록을 담고 있는 글이다. 김문집은 신학기에 조선어 과목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총독 관저에 무작정 찾아가는 기행을 벌인다. 그런데 쫓겨나기는 커녕 총독 비서관에게 언어 정책에 대한 의견의 대략을 전달하고, 개정 「조선교육령」을 작성한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 학무국장⁴²⁾을

38) 이준식, 『조선총독부의 일본어 보급 정책과 조선어 규제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3, 256면.

39) 전상숙, 앞의 책, 284-285면.

40) 이준식, 앞의 책, 264면.

41) 「개정교육령과 조선어과」, 『조선일보』, 1938.3.5.

만나 새로운 교수법과 교과서로 효과적으로 조선어를 가르쳐 달라는 입장을 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마침내 공식 면회일에 총독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조선 문단의 국가적 재인식”을 주장하며, 조선어의 민족적 보장과 한글 문화의 현실적 발전을 꾀할 것을 부탁하는데, 군인 출신 총독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조선어 보장이 바로 본인의 시정방침이라 답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난해한 표현으로 소박한 총독을 헛갈리게 한 것을 뉘우치는 골계 섞인 반성으로 끝나는 이 글의 총독 회견 내용은 『동아일보』 1938년 7월 16일자 1면 기사에도 제12회 정례 면회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⁴³⁾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은 김문집이 조선어 문학의 보존을 위해 흔치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일문학자’로서의 김문집과 이 문제는 어떻게 연관될까? 내선일체 선포 이후 조선어 문학의 향방에 대한 김문집의 구체적인 생각은 「신문화주의적 문예 시평-비상시에 처한 문단의 자각」(『삼천리』, 1938.1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 김문집은 우선 자신이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예술지상주의자로서 조선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한편 칸트, 플라톤, 괴테, 헤겔 등을 비인격적으로 인용하며 ‘신문화주의’를 새롭게 천명하고자 하는데, 그가 말하는 신문화주의란 바로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영원성을 발견하겠다는 “목하의 문화주의”를 뜻하며, 문화의 중심은 정치, 도덕, 종교 등이 아닌 예술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된다. 이러한 전제들을 쌓아 나가며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문학 예술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받고 있으나 실상 정반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국 군인이 용감한 것은 예술적 정서가 민족성에 침투된 결과이며, 조선 대중의 총후 미담 역시 민족적 교양이 예술과 화학 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그는 강조한다.

42) 전상숙, 앞의 책, 283-284면.

43) 「조선문단 옹호-제12회 총독 면회일」, 『동아일보』, 1938.7.16.

理想의 文明國 希臘의 文化의 根柢가 藝術임이 完연한지라 自他共認의 世界的 文明國인 大日本帝國의 文化의 根柢가 藝術이 아니고 어찌랴. 歌舞伎, 浮世繪 등이 日本帝國의 우수한 藝術要素인 것처럼 朝鮮文學은 例컨대 雅樂, 高麗자기 등과 같이 우수한 日本帝國의 藝術的 領野의 成員인 것이 明白하다. 왜냐하면 사실에 있어서 朝鮮은 日本帝國의 일개 領野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爲政者가 朝鮮文學의 발달을 助成치 않을 뿐더러 되려 그를 異端視하고 심지어는 害毒視하는 정책을 베푸는 일이 잇다면 우리는 알다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당국의 自省과 文壇의 自覺 아울러 須要之事일진저. 文化에 있어서의 藝術의 位相을 再認識하라. 藝術의 大日本에 있어서 朝鮮文學을 再認識하라. 新文化主義的 文藝時評도 實인즉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223)

인용문은 조선의 우수한 예술, 특히나 문학이 대일본 제국의 광영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김문집은 중일전쟁 이후의 시정방침인 내선일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선어 교육은 물론 조선어 문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주장은 내선일체에 암묵적으로 반대하고 있던 조선 문단의 동료들은 물론, 김문집과 마찬가지로 내선일체에 찬동하고 나선 현영섭의 주장과도 상이한 방향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전향 무정부주의자 현영섭은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길(朝鮮人の進むべき道)』(1938)에서 조선인이 완전한 황국 신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 상용이 필요한 만큼 조선어를 폐지하라고 주장했으며, 미나미 총독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총독은 국어 보급 운동이 조선어 폐지 운동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되므로 조선어 사용 전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소식은 김문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신문 잡지를 통해 조선 사회에 공유되었다.⁴⁴⁾ 조선어 과목의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두었음에도 총독부는 이 사실

을 공식화하지 않았고 급격하게 폐지를 단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언어 사용을 매개로 과잉 충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조선인의 출현이야말로 내선일체 방침이 가져올 과장을 예고한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언어 사용 문제는 조선 내부 통치의 차원을 넘어서 제국과 식민지 간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핵심 논제로 떠올랐다. 가령 “문화에서 내선일체의 길”을 중심 논제로 다룬 좌담회 「조선 문화의 장래와 현재(朝鮮文化の將來と現在)」(『京城日報』, 1938.11.29.-12.7.)에서 무라야마 토모요시(村山知義)나 하야시 후사오(林房雄) 등 일본의 유명 작가들은 춘향전을 일본어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태준, 유진오, 임화, 김문집, 정지용, 장혁주 등 조선인 작가들은 모두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측 작가는 시국을 떠나 자본의 논리로 일본어 창작의 당위성을 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태준, 유진오, 임화 등은 반대의 입장을 표했고 그 자신이 일본어 소설가였던 김문집조차 찬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본다면 김문집은 분명 조선 문단의 일원으로서 조선어 수호라는 공동의 의제에 참여하고 있던 셈이나, 다른 문인들과 달리 내선일체를 승인한 상태에서 이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는 데 독특한 입지가 있다. 물론 이 시기의 문단은 황국위문작가단이며 조선문인협회 결성 등 거세지는 협력의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갔지만, 동아신질서론과 내선일체론과의 거리 두기 또한 만만치 않게 지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김문집의 시국적 예술지상주의는 결국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문단재건론」(『삼천리』, 1939.4.)은 「신문회주의적 문예시평-비상시에 처한 문단의 자각」에 대한 동료 문인들의 비판에 응답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김문집은 자신이 생각하는 내선일체란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객

44) 이준식, 앞의 책, 356-357면.

관적으로 같은 조건하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임을 강조한다. 조선인은 왜 민족주의를 일본 국가주의에 대한 반항의 차원에서만 분출하는가? 조선이 일본의 일부가 된다면 일본을 살리는 것이 곧 조선을 살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징병령과 의무교육령이 조선에 시행되기를 바랐던 것이며, 미나미 총독이 시행한 지원병령과 교육개정령이야말로 이에 대한 암시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문집의 내선일체론은 그를 비판하는 조선인 민족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물론, 총독부 측에서도 달가워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그 역시 ‘내가 생각하는’이라는 단서를 붙였듯이, 당시 내선일체에 대한 해석은 하나로 좁혀지지 않았으며 당국자와 조선인 간 입장 차이도 컸다. 그래서 미나미 총독은 1939년 4월 18일 개최된 도지사 회의에서 내선일체의 목표가 “조선인의 황국 신민화”에 있음을 재강조하며 조선과 일본의 급진적 평등이나 동등한 권리 실현으로 해석하는 일각의 의견을 비판했다.⁴⁵⁾ 이렇게 본다면 “이 문제에 한해서 당국은 우리의 기탄 없는 이론 투쟁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김문집의 주장이야말로 비시국적인 것이라 할 수 있었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적 협화의 민족 이원주의”를 실현하자는 그의 주장은 “완전한 무차별”이라는 말로 「내선일체 구현의 방법-조선민족의 발전적 해소론 서설: 상고에의 귀환」(『조광』, 1939.9.)에서 다시 한번 강

45) 김봉식·박수현, 『전시 동원 체제와 전쟁 협력-총동원 체제와 관제 운동』, 동북아역사재단, 2022, 123면.

46) 실제로 내선일체는 합의된 지침이라기보다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장으로 기능했다. 미쓰이 다카시,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1938년) 회의를 통해 본 내선일체(內鮮一體) 문제-제1분과회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14,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3. 미쓰이 다카시는 이 논문에서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회의가 내선일체의 균열과 모순을 드러내는 장이 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내선일체를 몰자 총동원을 지탱하는 정신 총동원의 도달점으로 삼은 총독부의 방침과 달리, 실제 회의석상에서 이슈가 된 것은 조선인의 처우 개선, 내지와외의 제도적 일체화, 생활 보장 등의 문제였으며, 이의를 제기한 참석자는 이른바 ‘친일파’로 분리되는 조선인 위원들이었다.

조되는데, 여기서 김문집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과 일본이 하나라는 기원을 찾고 있다. 각종 명사와 예술가의 이름을 화려하게 거론하는 문학비평과 달리 마치 자신만의 독자적 논의처럼 기술되긴 했으나 사실이 글은 조선총독부가 구성해 내고 있던 내선일체론을 답습한 것이었다. 미나미 총독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황국신민화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던 시오바라 학무국장은 오랫동안 잊혔던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소환해 동화 정책의 근거를 담론화했다. 큐슈제대 조교수 노조에 시게즈구(野副重次)의 민족학적 연구를 원용한 시오바라 논의의 핵심은 혈연적 동질성을 매개로 하는 “내선민족의 일체화”에 있었다. 그는 내선 양 민족이 같은 통구스족으로서 언어학적, 신화적 공통성을 지니며 내선 혼혈의 근거 또한 일찍부터 발견된다고 논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병합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조선 통구스가 본래 민족을 유지해 온 일본 통구스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⁴⁷⁾ 한편 경무국 통역관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는 1937년 초에 ‘일한양국어동계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어조선어동일론’을 주장하며 언어를 통한 내선일체로 시오바라의 논의를 뒷받침했다.⁴⁸⁾

그러나 학무국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동조동근론은 학계와 여론의 지지를 쉽게 얻지는 못했다. 1938년 9월에 개최된 시국대책조사회에서 “내선일체 강화 철저”에 관한 자문 사항, 그중에서도 ‘동조동근 문제’⁴⁹⁾가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고 수정, 삭제되었다는 사실로도 이는 증명된다. 흥미롭게도 니시무라와 시오바라의 논의는 내선일체론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했던 조선인 김문집의 글에서만큼은 간단하게나마 재현됐다. 김문집은 고대에 “대화어”와 조선어가 동일한 어계에 속했으나 반도와 섬의

47) 장신, 「일제말기 동근동조론(同根同祖論)의 대두와 내선일체론의 균열」, 『인문과학』 54,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99-102면.

48) 이준식, 앞의 책, 252-253면.

49) 장신, 앞의 논문, 106면.

지리적 차이가 말의 차이를 빚어냈음을 기술하는 한편, 내선 양 민족의 7/10을 점유하고 있는 공통의 파-통구스의 피가 만주족의 그것과는 형질을 달리함을 논했다. 또한 무사도와 화랑도의 친연성, 신사의 조선적 기원, 백제왕조 때 야마토 혈통과 문화가 조선으로 이식됐다는 점, ‘마로’라는 명칭, 조선성씨록 등 다양한 예시들을 소환해 내선일체를 입증하고자 했다. “참말로 의 내선일체, 즉 완전한 무구별 무차별의 그 경지”를 바라보는 김문집의 논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도 요구하는 것인 만큼, 눈앞의 전쟁에 조선인을 동원하는 데 목적을 둔 총독부의 입장과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는 시국에 적극적인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촉탁을 맡으며 관제 운동의 일역을 담당했다. 그러나 1940년 4월 검거되며 그의 ‘애국’적 실천 또한 막을 내리게 된다.

5. 나가며

이제까지 김문집 문학의 전개 양상을 모더니즘 소설, 예술주의 비평, 내선일체론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도쿄에서 경성으로, 소설에서 비평으로, 문학에서 정치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그는 예술 지상주의에 대한 신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예술 지상주의는 문학은 언어예술이며 미적 표현을 구가하는 것이 모든 문학자의 본령이라는 소박한 입론에 기댄 것이었다. 때로 그는 국적과 민족성을 초월하는 보편적 자리에서 예술을 논했지만, 실은 누구보다 강렬하게 자신의 민족성과 문학(어)의 불/일치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예술’ 못지않게 ‘예술하는 나’를 중시하며 예술과 삶의 일치를 꿈꾼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술가로서의 천재성과 광적인 여성 혐오를 분간하지 못한 채 거듭해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합리화했다.

이렇게 볼 때 김문집이 엘리트 비평가로 조선 문단에 흡수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대로 이는 카프 퇴조 이후 방향성을 재탐색하고 있던 문단 분위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여러 문인들의 글에서 발견되듯이 별나지만 재치와 개성을 가진 친구로서 남성 공동체에 수용되었던 덕도 크다. 다만 김문집은 자신의 조선어 비평이 “터무니없는 일”이자 “민폐 천만”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⁵⁰⁾ 평론을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소설가 지망생이 익숙지 않은 언어로 평론을 써 내는 것이 녹록치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일전쟁 발발 이후 김문집은 동요와 혼란에 빠진 일반 조선인들과 달리 이제야말로 조선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덕분에 과거와 달리 도쿄에서 출간된 잡지를 읽을 때 “이따위 정도의 소설쯤 조선에도 얼마든지 있다.”며 “비로소 안심하고 서울에 주저앉은 나 자신의 위상을 뉘우침 없이 돌볼 수” 있었다고도 말하고 있다.⁵¹⁾ 변화하는 시국 속에서 문단 권력을 보전하거나 쟁취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김문집의 이와 같은 욕망은 당시 부상한 조선인 작가 정인택, 이석훈 등의 출세욕과는 변별되는 내적 기원을 지닌 것이었다. 도쿄 문단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찰나를 잊을 수 없던 그는 완벽한 평등과 일체의 환상 속에서 자신을 내내 괴롭히던 “동경애(東京愛)”와 “조선애(朝鮮愛)”를 종합할 근거를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자신도 뒤늦게 배우고 익혀야 했던 조선어 문학의 미와 고유성을 당당하게 주장할 근거를 내선일체 문화의 지평에서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는 미나미 총독을 직접 찾아가 조선어 과목과 조선 문단의 존속을 주장하는 일대 이벤트를 벌였으나, 이 때문에 문단에서 고립될 것을 미처 예상하지는 못했다.

이 시기 김문집의 선택과 관련해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조선

50) 金文輯, 「あなたの螳螂姿, 横光利一さんへの私信」, 『國民新報』, 1939.4.30.

51) 김문집, 「동경 청춘기-화약과 순정의 문학적 추억」, 『조광』, 1939.8.

어 문학 수호에 나선 이 시기에 그 자신은 조선어로 소설을 써보겠다는 희망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사물을 일본어로 생각하고 조선어로 글을 쓰며 생계를 이어가는 모순된 생활을 이어 나갔으나, 인정받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내밀한 욕망까지 거짓은 아니었다. 요코 미쓰 리이치에게 보내는 서간문은 이러한 사정을 드러내는 글로써, 조선어 창작 연습을 위해 「理毛師」를 조선어로 번역하는 그의 작업이 어떻게 해도 성공할 수 없었음을 알게 해 준다.

쇼와 4년 모더니즘 전성 시대에 발표한 작품으로 그 첫머리의 첫 번째 문장이라는 것은 “얼음 기둥 속에서 기절한 거베라 꽃이 진홍빛 의상으로 교교하다.”입니다만, 이것은 전혀 일본 특유의 정서도 아니거니와 야마토 민족 고유의 언어 감정도 아닌—도쿄 부근 여름철 백화점에 종종 있는 냉방용 얼음 기둥의 모습입니다만, 장식에 위해 인공적으로 그 얼음 기둥 한가운데에 얼어붙어 있는 거베라(아프리카 민들레) 꽃의 형용을 어떤 식으로 조선어로 옮겨야 하는지,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교하다’를 일주일이나 만지작거리봐도 그 어감이 교교해지지 않았습니다!⁵²⁾

조선어로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는 미래 도시를 감각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도쿄의 급성장과 도시 문화의 화려함을 몸소 경험한 그는 상상과 재현을 섞어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 문장을 구성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어휘에서는 적당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렇듯 번역으로 절대로 살릴 수 없는 잉여의 지점이 있다는 것을 김문집은 창조성의 계기가 아니라 절망으로 받아들였고, 조선어로 창작하는 것도 번역하는 것도 불가능한 이상 자신의 소설은 오직 일본어로 쓰여야 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예술 지상주의자답게 시국물은

52) 金文輯, 「あなたの螻蛄姿, 横光利一さんへの私信」, 『國民新報』, 1939.4.30.

“유치”한 것으로 여겼고 여기에 가담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이미 『ありらん時』에 수록했던 작품들을 조금씩 손보아서 『國民新報』에 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인지 김문집은 조선어로 쓴 앞의 에세이와 달리 일본어로 쓴 이 편지에서 조선은 더 이상 자신의 “고향”이 아닌 것 같다고 썼다. 어떤 것이 그의 진심이였을까? 유동하는 두 개의 언어와 장소 속에서 분투하던 그는 결국 자신의 표현대로 “빼도 박도 못할 처지”에 빠져 버린 것이다.

일본어 신문의 소설 지면을 채우며 조선어 문학의 보존을 외치는 김문집의 이율배반적인 실천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조선어 언론 매체의 통폐합이 전개되고, 속문주의자 이광수가 조선문학을 일본문학의 구성 요소로서 위치시키며 로컬 컬러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모두 김문집이 공론장에서 사라진 1940년 이후의 일이다. 대표적인 국민문학 이론가들인 최재서와 김중환의 신지방주의론 구상도 아시아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인 1942년에 도달해야 가능했다. 그래서 예술 지상주의를 표방한 김문집의 시국론은 이와 같은 논의들과 더불어 공론화되거나 검토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만약 전체주의가 전면화되고 서구 근대에 기원을 둔 모든 종류의 문학적 유습이 배척받는 시기로 김문집이 진입할 수 있었다면 그의 ‘예술을 위한 예술’론이며 ‘조선어 문학 보존’론도 노선을 변경해야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말기를 따라가 보건대 한국문학사에서 김문집 문학의 위치는 과거처럼 비평예술론의 공적을 일부 인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더니즘 혹은 예술 지상주의라는 보편적 개념이 제국식민지 관계 및 전시 체제하 동원 논리라는 특수한 국면과 어떻게 결합되고 변형되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고쳐 서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문집의 내선일체론은 당국의 논리를 되받아 쓰면서도 이를 위반하는 논리를 구성해 내고 있다는 점, 시국에 편승하면서도 시국 문학은 부정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한편 1940년 이전에 제출됐다는 시기적 문제 때문에 내

선일체 담론 혹은 ‘친일’ 담론의 초기 스펙트럼이라는 범주 속에서 재논의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것이 바로 김사량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선 문화의 진드기’로 한 시기를 풍미했던 김문집을 다시금 주목해야 할 이유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동아일보』, 『매일신보』, 『삼천리』, 『여성』, 『조광』, 『조선문학』, 『조선일보』, 『京城日報』, 『國民新報』, 『三田文學』
김문집, 『비평문학』, 청색지사, 1938.
金文輯, 『ありらん時』, 第二書房, 1958.

2. 논문

- 강경화, 「한국문학비평의 존재론적 지평에 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10, 반교어문학회, 1999.
강인숙, 「일본 모더니즘 소설에 대한 고찰」, 『구보학보』 1, 구보학회, 2006.
김선, 「1930년대 중후반 문화 담론과 김문집의 '산론(散論)」, 『한국학연구』 5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노상래, 「김문집 비평론」, 『한민족어문학』 20, 한민족어문학회, 1991.
서승희, 「식민지 데카당스의 정치성-김문집의 일본어 글쓰기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5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손지연, 「쇼와 초기 문학에 나타난 도쿄 표상과 일본인의 심상지리」, 『일본학연구』 26,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신재기, 「창조적 비평의 주창과 그 실천」, 『향토문학연구』 7, 향토문학연구회, 2004.
오세인, 「한일근대문학에 나타난 감각 개념의 비교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7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우문영, 「김문집 비평 연구-『비평문학』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7, 청람어문교육학회, 2016.
이보영, 「Oscar Wilde 문학의 수용과 그 한국적 변용」, 『세계문학비교연구』 1,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1996.
이은애, 「김문집의 예술주의 비평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5, 한국문예비평학회, 2004.
이화진, 「박태원과 신감각과, '감각'의 양상과 의미」, 『반교어문연구』 44, 반교어문학회, 2016.
장도준, 「김문집의 비평예술가론」, 『향토문학연구』 7, 향토문학연구회, 2004.
장신, 「일제말기 동근동조론(同根同祖論)의 대두와 내선일체론의 균열」, 『인문과학』 54,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 정안기, 「이인석 상등병의 전사와 '죽음의 정치성」, 『일본문화학보』 76, 한국일본문화학회, 2018.
- 한형구, 「한국 탐미(주의) 비평의 한 사례」,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회, 2011.
- 홍경표, 「김문집 비평의 몇 가지 논거들」, 『향토문학연구』 7, 향토문학연구회, 2004.
- 황경, 「김문집의 일본어소설 연구-『아리랑고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9, 한민족문화학회, 2012.
- 三ツ井崇,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1938년)회의를 통해 본 내선일체(內鮮一體) 문제-제1분과회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14,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3.
- 小倉齊, 「龍膽寺雄の挑戦 : 「放浪時代」を中心に」, 『愛知淑徳大学大学院文化創造研究科紀要』 8, 愛知淑徳大学大学院文化創造研究科, 2021.
- 川村湊, 박종렬 역, 「화돈정전」, 『향토문학연구』 7, 향토문학연구회, 2004.

3. 단행본

- 김봉식·박수현, 『전시 동원 체제와 전쟁 협력-총동원 체제와 관계 운동』, 동북아역사재단, 2022.
-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6.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2002).
- 서승희, 『식민지 근대의 크리티크』, 소명출판, 2023.
- 신하경, 『모던걸-일본 제국과 여성의 국민화』, 논형, 2009.
- 이준식, 『조선총독부의 일본어 보급 정책과 조선어 규제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3.
-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1966(2005).
- 전상숙, 『조선총독의 지배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2.
- 조선일보사출판부, 『현대조선문학전집』 5 평론편,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
- 初田亨, 이태문 역, 『백화점-도시문화의 근대』, 논형, 2003.
- 保昌正夫 외, 고재석 역, 『일본현대문학사』 상, 문학과지성사, 1998.

<Abstract>

The Paradox of Kim Mun-jip's Literature – A Literary Chronology from Modernism to Naeseon Ilche

Seo, Seung-hee

This paper examines the literary trajectory of Kim Mun-jip, a controversial figure in Korean literary criticism during the mid-to-late 1930s. Despite his active engagement in the field, Kim became a problematic figure due to his pro-Japanese stance and eccentric behavior. His literary development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1) experimental modernist fiction, (2) criticism centered on the question of literary language, and (3) engagement with the discourse on Naeseon Ilche (Japan-Korea Unity, 内鮮一体).

Kim's early literary endeavors were shaped by Japanese modernism, particularly the Shinkankakuha(新感覺派). His early work, the novel written in Japanese Rimoshi(理毛師), set in a futuristic Tokyo, reflected a dual consciousness toward modernity through the figure of the 'modern girl,' observed from a marginalized perspective. Subsequently, he sought to establish a unique literary identity by exploring the regionality of a declining Korea but failed to gain literary recognition.

After returning to Korea in 1935, he turned to literary criticism, advocating the notion that "literature is the art of language." He argued that Korean literature suffered from a lack of tradition and artistic quality. Although his critiques often lacked logical coherence, they ignited debates on the essence of literature, particularly in a critical landscape searching for new directions after the decline of proletarian literature. He notably praised Kim Yu-jeong's literary language and called for a renewal of Korean literature. However, his limited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ry traditions and linguistic biases

hindered his critical depth.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Kim aligned himself with the colonial policy of Naeseon Ilche, envisioning complete equality and indistinguishability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He argued that the beauty and uniqueness of Korean-language literature could enrich Japanese culture. Furthermore, he sought to reconcile his identity as an artist wandering between Japan and Korea through the aesthetic framework of Naeseon Ilche, but ultimately faced downfall amid criticism from Korean writers and his own self-destructive actions.

Kim Mun-jip's literary trajectory provides a valuable case for re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modernism and aestheticism in the non-Western East Asian context. It also sheds light on the diverse spectrum of discourses and practices surrounding Naeseon Ilche in colonial Korea.

Key words: Kim, Mun-jip, Literature Written in Korean, Modernism, Novel written in Japanese, Aestheticism, Colonial Korean Literary Criticism, Colonial Korean Language Education, Literary Translation, Naeseon Ilche(Japan-Korea unity, 内鮮一体), Pro-Japanese collaboration

투 고 일: 2025년 2월 23일

심 사 일: 2025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5년 3월 16일

수정마감일: 2025년 3월 28일